

소설 원작 영화 인기행진 올해도 쪽~

지난해 4월 출간된 박범신의 장편 소설 '은교'는 지난 2월말까지 전자책을 포함해 약 8만권 정도가 꾸준히 팔렸다.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레 서점들의 주문이 밀려들었고, 출판사측은 급하게 책을 찍어내고 있다. 영화 '은교'의 예고편과 포스터 등이 공개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문학동네 국내 도서팀 관계자는 "출간 이후 '은교'는 독자자들의 꾸준한 반응을 얻었는데 영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주에 1만 5000권을 찍었고, 이번주에도 1만권을 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은 소설 원작 영화가 감세를 보인 한해였다. 김려령 작가의 '완득이'가 530만명을 동원했고 공지영의 '도가니'(466만명)와 김탁환의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470만명)도 대박을 터트렸다. 소설은 아니지만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도 22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올해는 '화차'와 '은교'가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6일 개봉 예정인 '은교'는 영화 스틸과 포스터, 예고편 등이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17세 고등학생 소녀 은교



원작자 박범신(가운데)과 함께한 영화 '은교' 감독과 출연진.

원작도 인기... '은교' 주마다 1만여권 인쇄
 日 소설 '용의자 X의...' '완전한 사랑' 제작
 '남쪽으로 튀어' 임순례·김윤석 호흡 기대



를 둘러싼 노스인 이적외와 제자 서지우의 욕망과 질투를 그린 '은교'는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특히 70세 노인역으로 분한 박해일의 모습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은교역을 떠낸 신인배우 김고은, 배드신 등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200만명의 관객을 돌파한 영화 '화차' 역시 소설이 원작이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하는 3월 셋째주 베스트셀러 3위에 이름을 올린 '화차'는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지난 2월20일 첫책을 찍은 '화차'는 현재 8쇄, 7만5000부가 출간됐다.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낸 '화차'는 기존의 번역본에서 빠지거나 축약되었던 원고지 500매 분량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낸 완역본으로, 미야베 미유키의 친필 사인과 영화 '화차' 변영주 감독의 메시지도 삽입돼 있다.

또 현재 상영중인 김소연·주진모 주연의 '가비' 역시 김탁환의 소설 '노서아 가비'가 원작이다.

일본 소설들은 또 다른 작품들이 대기중이어서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추리 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창 제작중이다. 나오키 상 수상작인 '용의자 X의 헌신'은 2005년 각종 추리소설 순위랭크에서 1위를 휩쓴 수작으로 지난 2009년 이미 일본에서 먼저 영화화된 작품이다.

'오로라공주'를 연출했던 방은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완전한 사랑'에는 류승범과 이요원이 출연한다.

'공중그네', '인 더 풀'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



영화 '화차'

는 오투다 히데오의 소설 '남쪽으로 튀어'도 영화로 만들어진다. '남쪽으로 튀어'는 사회주의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아나키스트로 변한 아버지를 둔 사춘기 소녀의 일상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완득이'의 김윤석이 출연을 결정,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 정유정의 '7년의 밤' 등도 영화화를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폴리 총감독 불참에 '반쪽' 시민토론회

내정된 스테파노 보에리 건강 악화... 내일 행사 차질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도심 공공시설물인 '2012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했던 시민 대토론회가 '반쪽' 토론회에 그칠 전망이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올해 폴리 총감독 내정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다.

27일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올해 폴리 총감독과 지난해 총감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폴리 총감독, 시민과의 토론회'에 올해 폴리 총감독으로 내정됐던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56)가 불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2012 폴리 프로젝트'의 전시 기획을 총괄할 스테파노 보에리 총감독이 시민들에게 기본 구상을 발표하는 첫 자리로, 각종 각종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승효상 2011 디자인비엔날레 감독과 스테파노 보에리 2012년 폴리 감독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초대장도 배포한 상황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라는 건물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인 스테파노 보에리를 총감독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28일 임명장 수여 및 비엔날레 이사회 참석 ▲29일 현장 답사 및 토론회 등의 행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스테파노 보에리 총감독의 불참으로, 애초 기대했던 올 해 전시 기획·참여자가 선정·설치 장소 등의 밑그림은 사실상 제외될 수밖에 없어 '반쪽'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비엔날레측은 보에리가 파다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국내 행사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엔날레는 한발 더 나아가 보에리의 건강 악화 등을 들어 총감독 선정 절차를 차후부터 다시 논의키로 해 폴리 감독 선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붓끝으로 전해지는 침묵의 향기

지선묵연회, 30일~4월 5일 금호갤러리

여성 서예가들의 모임인 지선묵연회(회장 이형숙)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지선묵연회는 서예가 학정 이돈홍씨로부터 서예를 배운 여성 서예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1984년 창립전 이후 2년마다 회원전을 갖고 있다. 올해로 14회

째다. 전시에는 국전 초대작가를 비롯해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한자 서체인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와 한글로 쓴 고문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강진군 혁명미술관으로 옮겨 5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차춘자 작 '榮根韻句'

5·18 다룬 영화 '26년' 시민의 힘으로 만든다

강플 만화 원작... 청어람, 후원금 10억 모금

5·18 광주민중항쟁의 확산 주범을 단죄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26년'이 시민들의 모은 후원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제작된다.

제작사 청어람은 27일 열린 "'26년' 제작비 온라인 펀딩' 기자회견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11월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작사 영화사 청어람 최용배 대표, 원작자 강플 만화가, 국편당의 신현욱 대표가 참석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청어람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온라인 펀딩사이트 '굿펀딩'(goodfunding.net)과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개미스폰서'(socialants.org) 사이트를 통해 제작비 10억원을 모금한다.

국편당을 통한 목표 금액은 9억9000만원, 개미스폰서에서는 1000만원을 목표로 세웠다. 기간 안에 목표액이 모이지 않으면 모금 프로젝트는 무산된다. 제작사는 '26년'의 순제작비로 50여원을 잡고 있으며, 감독은 투자상황과 시나리오 보강 등을 거쳐 새로 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인터넷에 연재돼 인기를 모았던 만화가 강플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한 '26년'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성과 시민군 희생자 자녀들이 26년 뒤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 확산 주범을 단죄하기 위해 펼쳐는 기밀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 연재 당시 하루 평균 조회수

가 200만을 넘고 댓글은 회마다 1000개 이상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청어람은 지난 2008년에 강플의 만화를 바탕으로 영화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촬영을 열흘 앞두고 무산되며 각종 구설을 낳은 바 있다.

원작자인 강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이 영화에 대한 모종의 외압설 속에 영화화가 무산되면서 내가 제작사와 맺은 관계와 기간도 끝났지만, 제작사한테서 권리를 회수하지 않았다"면서 "제작사가 영화화를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고, 무한한 지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38,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축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